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수3:17

요단 가운데 서서 가나안 입성을 도운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처럼 동역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역 현장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UAUT 대학: 1월28일 탄자니아에 도착한 CTS 감경철 회장님을 비롯한 공동대표인 합동, 통합, 감리교단 총회장들께서 대학을 방문하여 큰 도전을 주셨고, 다목적용도로 세워지는 Open Church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랠리 한인교회의 지원으로 8명에게, 저희 막내 내외가 아내 김지연 선교사의 이름으로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탄자니아 칼빈신학교와 탄자니아 장로교회 제자들: 칼빈신학교(CTC)는 탄자니아장로교단장인 제임스 음겐다 목사가 현지인으로서 2 대째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CTC 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저학력자를 위한 성경과와 고학력자들을 위한 신학과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던 것을 분리하여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고 미래 지도자 육성을 위해 탄자니아 정부 인가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TC 출신 목회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정적인 사역과 헌신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탄자니아 전역에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교단과 오해가 있었던 다니엘 세니 박사의 문제도 교단장과 해결 방안을 찾았고(아래 좌), 모슬렘 주술사들이 영력이 떨어지면 찾는다는 바가모요 지역에서 20 여년째 사역하는 피터 용고로 목사의 마팀부와 교회가 마을의 영적 센터가 되도록 교회를 보수하고 유치원 사역을 지원할 때 같이 동행했던 최규연 선교사께서 가지고 있던 음향 장비를 설치해 주어 수년간 해온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가모요 광야에 4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조셉 목사의 현장은 차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진흙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지하수와 견고한 벽돌로 교회로 지어 주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없이 브룬디에 8개의 교회를 개척한 올라프 목사의 사역은 연구 대상이 되어 탄자니아장로교단 지도부와 6월 초 신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 바가모요 조셉목사 와 브룬디 사역자들과 함께 한 올라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지난 30여년간 사역해 온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를 제자들과 미래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선 UAUT 대학과 칼빈신학교 및 목회자 자녀들을 비롯한 청소년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40년여 이번에 시집 보낸 아나 목사는 초등학교 5학년때 탄자니아 북부 마사이 오지교회에서 제 설교를 통역해 준 소녀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영적 자녀로, 사역자로 아나 목사를 돌본 것 같이 사람을 키우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2025.4.17

작은 자 이 진섭 드림

기도 제목

1. UAUT 와 탄자니아 칼빈신학교가 역량있는 국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2. 성령이 함께하는 원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4. 10 여명에 이르는 장학생들과 제자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